

국내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연구동향 분석

김용진*·고필재**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참여기구에 관한 국내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보다 더 활발한 후속연구를 촉발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는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연구를 고찰하여 개념과 연구범위를 검토하였고, 1998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학위 및 학술지 논문 27편과 국내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12편, 총 39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도별 동향은 2003년에 연구가 처음 등장하고, 2004년부터는 학술지 논문이 등장하였다. 연구대상의 경우 청소년참여기구 단독인 경우는 전체 39편 중 11편이며, 그 중 청소년운영위원회가 6편으로 가장 많았다. 참여기구를 혼합하여 연구한 경우는 28편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청소년참여기구 모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22편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방법으로는 양적연구가 20편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주제는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19편, 운영·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는 17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위논문의 경우 활동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연구보고서의 경우 운영·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의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이 제시된 제언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추진체계 보완, 강화가 필요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뿐만 아니라 학위논문과 연구보고서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청소년참여기구, 연구동향

*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자연) 청소년학위과정 강사, 주저자, yongkim95@naver.com

**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 석사, 공동저자, pjforum622@mju.ac.kr

I. 서론

1991년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협약 당사국이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이 보호와 육성의 관점에서 권리보장의 관점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또한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1998-2002)과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기본계획(2003-2007)을 계기로 ‘청소년 인권신장과 자율·참여’가 주요 정책이념이 되는 정책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여성가족부, 2018b).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청소년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청소년과 관련된 사안의 효율적인 해결방안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는 국가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총망라해서 제시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청소년 참여를 다루는 점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는 ‘시민역량증진 및 인성교육강화’라는 중점과제 내의 세부추진 과제로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이 추진된 반면,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청소년참여 및 권리증진이라는 정책영역이 신설되어 중점과제가 수립되었으며, 이 정책기조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그리고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을 마련하여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와 해당조 제4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명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다.

이 참여기구들은 청소년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책과 사업(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그 의미가 크며, 따라서 청소년참여기구가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지 방향성을 잡아 가는 것은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설치되어 운영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동안의 연구를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분석하여 기초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참여기구의 발전

적 연구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연구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청소년참여기구의 방향성을 모색하여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논문의 연도별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논문의 연구대상의 동향은 어떠한가?

셋째,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논문의 연구방법 동향은 어떠한가?

넷째,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논문의 주제 동향은 어떠한가?

다섯째,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논문의 제언사항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참여기구 근거 및 현황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2002) 수립 이후부터 청소년참여가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되었으며, 2003[2004]년도에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 참여보장을 청소년육성정책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정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기본이념으로 채택하였다(조혜영, 최창욱, 2008). 이 시기 이후로 청소년참여기구를 제도적 기반을 갖춰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참여 증진을 위해 2004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청소년 자치권확대를 명시하여 청소년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2012년 2월 해당 법령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하여 참여의 중요성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과 청소년(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이다. 2004년 시범적으로 개최되었고, 2005년 청소년기본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되면서 제1회 청소년특별회의를 시작으로 2019년 현재 15회가 개최되었으며, 추진체계 및 운영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들이 제안한 의제가 관련 부처의 정책대안 창출 및 추진으로 이어져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관련 부처들이

청소년특별회의를 계기로 유기적인 업무연계 및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특별회의 구성원의 대표성 문제, 정책의제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 부족, 추진 일정의 가변성, 대국민 홍보부족, 구성원의 명확한 역할 정립 미비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2009년부터 16개 시도의 참여위원회 구성 시에 대표성을 확보하고, 참여위원회 대표가 청소년특별회의에 참석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였다(김남정, 2010). 다음으로 2014년 추진체계 및 운영절차 개선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를 분리하여 선별하도록 하였으나, 2018년 다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청소년특별회의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여, 전국 참여위원회를 연계하여 범정부적인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다(고필재, 2020).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 및 수련시설 운영단체에 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참여하는 기구이다. 2004년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제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 혹은 기관장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 친화적 시설 운영 즉,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참여기구이다. 정부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정책의 형성·집행·평가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1998년 11월 당시 청소년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2001년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참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까지 운영하다 2005년 5월 청소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두 개의 청소년참여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1999년 제주도, 200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위의 2개의 참여기구와 비교하였을 때 별도의 근거법령 없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의 자치권확대 근거법령을 근간으로 하거나, 각 지자체별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해왔다. 이후 2012년을 기점으로 청소년 참여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해당 법령을 청소년기본법으로 이관형태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단순히 청소년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복지의 대상이 아닌, 참여가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과 참여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에

그 의의가 있으며, 2017년 12월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함을 명시하여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고필재, 2020).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 추진체계 및 운영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나, 위에 언급하였던 청소년특별회의와 연관된 사항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2018년에 광역 단위(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초 단위(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여, 보다 더 지역사회와 밀접한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2. 청소년과 관련한 연구동향

연구동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분석틀 설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청소년참여기구와 관련하여 내용분석 연구가 전무하기 때문에 청소년학, 청소년분야에서 분석틀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오치선과 권일남(1998)은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수련활동을 중심으로 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송병국(1999)은 청소년학의 연구방법론을, 김지선(2000)은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연구를, 김형수와 최한나(2004)는 여자 청소년에 대한 비행 관련 연구의 동향을 보고하였다. 조선화(2004)는 1970년부터 2002년까지의 아버지와 자녀(청소년)에 관한 연구의 동향과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박승민, 김창대와 천명재(2005)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을 보고하였다. 김윤나(2006)는 청소년관계법을, 이해경과 김현주(2007)는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관한 연구동향을 보고하였으며, 정경은과 문성호(2008)는 청소년 가출 관련 연구를, 문성호, 문호영과 한지연(2008)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동향을 보고하였다.

이상우(2009)는 1980년에서 2008년까지의 청소년 여가활동 관련 학위논문의 연구 동향을 보고하였고, 이영수, 손진희와 최윤진(2012)는 청소년 관련 학과 학위논문의 연구동향을, 김범구(2012)는 청소년 학업중단에 관한 연구동향을 보고하였으며, 이정우(2012), 남성희와 전종철(2013)은 청소년 다문화 프로그램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김상미와 남진열(2013)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청소년 수련활동 관련 연구 동향을 보고하였다. 김정숙(2014)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 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정책 연구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서효정(2014)은 청소년기 지적장애 학

생의 적응행동과 관련한 연구동향을 증재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보고하였다. 김상미와 김영환(2015)은 청소년 대상 국제체험학습에 관한 연구동향을 보고하였다. 전명순(2017)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청소년활동 연구동향을 보고하였다. 조혜영(2018)은 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의 변화 동향을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동향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였을 때 분류의 기준은 상이할 수 있으나, 청소년에 관한 연구동향은 청소년문제, 청소년보호, 청소년활동(수련활동, 여가활동), 청소년정책 연구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청소년참여기구는 청소년정책, 청소년활동의 한 영역에서 청소년 참여에 관한 내용을 다룰 여지가 있으나,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설치되어 운영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동향을 분석한 시도는 확인할 수 없어 현재 청소년참여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3. 청소년참여기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

청소년참여기구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들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청소년참여기구의 운영과 발전방향에 관련된 연구,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청소년의 참여경험이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연구, 기타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연구로 분류하였는데(최창욱, 전명기, 김윤희, 2013), 이는 청소년참여기구와 관련된 연구가 정책연구로서의 접근과 참여청소년에 대한 효과성과 관련한 접근이 대부분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청소년참여기구 운영과 발전방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참여기구 전반에 대한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요구를 조사하며, 청소년참여기구의 발전방향 제시는 주로 각 년도 청소년참여대회 자료집이나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서에서 일부 다루어 왔다(최창욱 외, 2013). 최창욱과 조혜영(2006), 최창욱과 조혜영(2007), 조혜영과 최창욱(2008)의 연구는 청소년참여기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최창욱과 김승경(2010)의 연구는 청소년특별회의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고, 이상희, 이해원, 그리고 최경옥(2009)의 연구는 정부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활용하여 당시의 16개 광역단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는 김희성(2004), 윤동엽, 문성호(2010) 등의 연구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었으며,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을 포함한 청소년 참여의 다양한 효과성을 다룬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김희성(2004)은 청소년 참여활동의 의미에 대해 청소년 참여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정치사회 임파워먼트 수준이 활동을 하지 않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훨씬 더 높게 나타났고 참여활동에 적극적으로 청소년이 정치사회적으로 더욱 임파워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자존감, 부모의지지, 권리의식, 성적이 정치사회 임파워먼트 형성에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함을 보고한 연구 결과가 있었다. 윤동엽과 문성호(2010)는 청소년참여의 경험이 기간이나 시간, 정도로 측정된 양적인 측면보다는 참여의 질적인 측면이나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성에 측면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임을 주장하였다.

이상으로 청소년참여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참여기구의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에 대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진행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내 청소년참여기구를 고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선정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해당 연구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발주되는 수탁연구도 있기에, 학술지 논문 분석과 같은 일반적인 접근으로는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석·박사 학위논문들과 함께 국내의 주요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들을 분석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하였다.

분석대상 기간은 청소년참여가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되기 시작되어 관련된 논의가 활성화된 시점이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이 수립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1998년부터 2018년까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포함된 학술지와 연구기관은 <표 1>과 같다.

〈표 1〉 분석 학술지 및 연구기관

구분	분석 학술지 및 연구기관
국내 학술지	국가정책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법과인권교육연구, 시민청소년학연구, 청소년 문화포럼, 청소년시설환경, 청소년학연구, 학교사회복지, 한국청소년연구
정책연구발주 및 수행기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국가청소년위원회,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서울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부, 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1998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및 석·박사 학위논문과 국내 주요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이다.

2. 자료수집 및 처리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국내 학술지 및 석·박사 학위논문의 검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에서 ‘청소년참여기구’ 키워드를 검색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청소년참여기구의 종류인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키워드로 하여 차례대로 입력하여 논문을 검색하였다. 한편으로는 그 연구내용에 따라서 ‘청소년참여’를 주제로 사용한 논문 중에 청소년참여기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연구초록 및 본문 내용을 읽고 확인한 후 논문을 추출하여 이들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단, 주요어 또는 제목에 청소년참여기구나 종류가 언급되지 않은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들 중 학술지 및 학위논문이 중복된 내용이 있는 경우 학술지 논문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은 국내 학술지 논문 14편, 학위논문 13편, 연구보고서 12편으로 총 39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수집 및 처리하였다.

3. 분석기준 및 방법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선정된 총 27편의 논문과 12편의 연구보고서의 분석을 위하여 교육학 박사 2인, 청소년지도학 박사과정 1인, 석사 1인이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대상 논문의 원문 전체를 읽어 해당 분야에서 의미 있는 기준을 선정하였으며, 이 과

정에서 분석방법에 대한 논의 절차를 거친 후 다음의 구체적 단계를 확정지었다. 먼저 분석을 위한 분류 체계는 기초항목인 서지 정보와 내용분석을 위한 세부항목으로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었으며, 본 연구의 논문 분석 틀은 <표 2>와 같다.

1) 기초항목

청소년참여기구와 관련된 연구의 기초항목을 통해 서지정보와 그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수립 이후부터를 기준으로 하여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연구보고서로 구분하여 1998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도별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2) 내용분석

먼저 연구대상은 각 연구에서 연구문제를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최소 단위이다. 연구 대상을 통해 연구가 관심을 두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독(예: 청소년참여위원회), 참여기구 혼합(예: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이들 대상의 연구문제를 달성하기 위한 조사대상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예: 청소년참여기구를 활동한 청소년과 비활동청소년), 청소년과 성인(예:활동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성인(예: 청소년지도자), 기타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방법은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로 분류하였다. 연구방법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교육학 박사 2인과 청소년지도학 박사과정 1명이 함께참여하여 분류에 대한 합의 과정을 거쳤다.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심층면담, 좌담회 등을 통해 분석하거나 사례를 연구한 논문인 경우 질적연구로, 비슷한 과정을 거쳤으나 설문 문항을 제작하는 목적으로 수행하여 통계 처리하여 수량화한 경우 양적연구로, 혼합연구의 경우 오은주(2008)를 근거로 분류하였다.

연구주제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기준(최창욱 외, 2013)을 참고해 재구성하여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청소년에 대한 연구와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그리고 기타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언에 대한 내용분석을 위해 분석대상 논문을 조사·검토 후 합의의 과정을 거쳐 내용을 유목화 하였다.

〈표 2〉 논문의 분석 틀

구분	세부항목	내용
기초항목 (문헌특성)	서지정보	1998~2018(20년) / 개재연도, 학위수여연도
	유형	학위논문, 국내 학술지, 연구보고서
연구대상	연구대상	단독, 참여기구 혼합(2개 이상), 기타
	세부대상	청소년(활동청소년, 활동/비활동청소년, 비활동청소년) 청소년과 성인(활동청소년/성인, 활동/비활동청소년과 성인), 성인, 기타
연구방법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연구주제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청소년에 대한 연구 참여기구 운영·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기타
제언		향후과제, 논의 및 시사점

IV. 연구동향 분석결과

1. 연도별 동향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국내 학술지와 학위논문, 연구보고서를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2003년 1편을 시작으로 2018년 39편에 이르기까지 논문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보고서가 2003년에 처음 등장하고 2004년부터는 학술지 논문이 등장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청소년특별회의 시범사업이 2004년에 개최된 것과 당해 연도에 청소년기본법 개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으로 청소년참여기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8년과 2009년에는 연구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당시 청소년 주무부처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존재하여, 안정적인 청소년 정책 집행이 어려웠으며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10년에는 청소년 정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후 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 시기가 맞물려 관련 연구가 일시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편 이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2015년 3편을 시작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분석대상의 연도별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분석대상 논문의 연도별 비율

구분 / 연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소계	비율(%)
학위 논문	박사논문													1	1	1		3	7.7
	석사논문			1	1		1		1	1			1	1	1	1	1	10	25.6
합계				1	1		1		1	1			1	2	2	2	1	13	33.3
학술지논문			1			2	1	2	3		1				1	1	2	14	35.9
연구보고서		1	1	1	1	1			1		1	2		1		1	1	12	30.8
합계		1	2	2	2	3	2	2	5	1	2	2	1	3	3	4	4	39	100

2. 연구대상에 대한 분석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연구의 대상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구대상이 청소년참여기구 단독인 경우는 전체 39편 중 11편(28.2%)이며, 참여기구를 혼합하여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28편(71.8%)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이 단독 연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소년운영위원회가 6편으로 전체의 15.4%이며, 대상을 단독분류로만 한정 지을 경우 54.5%로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청소년특별회의나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정보 확보나 검증이 어려워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기가 쉽지 않아 연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관련 수련시설이 많아 정보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이 혼합 연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소년참여기구 모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22편(56.4%)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6편(15.4%)이었다. 반면,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논문과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논문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청소년참여기구의 성격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표 4〉 분석대상 논문의 연구 대상

구 분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연구보고서	소계	비율(%)
단독	청소년특별회의			2	2	5.1
	청소년참여위원회	2	1		3	7.7
	청소년운영위원회	2	2	2	6	15.4
혼합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4	2		6	15.4
	3개 참여기구	5	9	8	22	56.4
	합 계	13	14	12	39	100

다음으로 〈표 5〉에는 연구대상의 세부 조사대상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활동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체 39편 중 19편(48.7%)이며, 활동청소년과 지도자를 조사대상으로 한 논문이 7편(17.9%)이었다. 그리고 활동청소년과 비활동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한 논문과 활동/비활동청소년과 지도자를 조사대상으로 한 논문이 각각 3편(7.7%)이었고, 지도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한 논문은 1편(2.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특별회의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만 나타나는 특성으로 분류되지 않은 청소년과 지도자를 조사대상이 있는데 해당 논문은 청소년특별회의가 운영되기 전, 해당 기구의 구성에 대한 기초연구 성격으로 활동 청소년이 아직 없는 경우(1편)와, 교급별로만 명시한 경우(1편)로 확인되었다. 한편, 비활동청소년만을 조사대상으로 한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참여기구의 계획, 활동, 평가의 주체가 활동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이기 때문이다.

〈표 5〉 연구대상별 세부 조사대상 요약

구 분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3개 기구 (참여활동)	소계	비율 (%)
청소년	활동청소년		2	2	6	9	19	
	활동/비활동청소년			1		2	3	
청소년과 성인	활동청소년과 지도자			2		5	7	
	활동/비활동 청소년과 지도자					3	3	
	청소년과 지도자	2					2	
성인	청소년지도자			1(지도사)			1	
대상없음			1(정보청구)			3(문헌)	4	
합계		2	3	6	6	22	39	

3.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

연구방법에 따른 분류는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기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청소년참여기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 39편 중 양적연구가 20편(51.3%)으로 가장 많았으며, 질적연구가 13편(33.3%), 기타연구가 4편(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연도에 따라 사용된 연구방법론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초반에는 양적연구가 주를 이루다 13년도를 기점으로 질적연구도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분석대상 논문의 연구방법

구분 / 연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소계	비율(%)
양적연구			1	1	3	1	1	2	1	2	1		2	1	2	2	20	51.3
질적연구	1	1				1		2			1	1	1	2	1	2	13	33.3
혼합연구				1											1		2	5.1
기타		1	1				1	1									4	10.3
합계	1	2	2	2	3	2	2	5	1	2	2	1	3	3	4	4	39	100

다음으로 〈표 7〉에는 연구방법과 논문유형을 교차 분석하여 과제수를 제시하였다. 우선 학위논문의 경우 양적연구가 11편, 질적연구가 3편으로 나타나 양적연구가 우세하였고, 학술지논문의 경우 양적연구 6편, 질적연구 5편, 기타 3편으로 비슷한 규모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보고서의 경우 질적연구 6편, 양적연구 3편, 혼합연구 2편, 기타 1편으로 나타났다.

〈표 7〉 연구방법 및 논문유형 교차분석

구분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연구보고서	소계	비율(%)
양적연구	11	6	3	20	51.3
질적연구	2	5	6	13	33.3
혼합연구			2	2	5.1
기타		3	1	4	10.3
합계	13	14	12	39	100

4. 연구주제 및 내용 관련 분석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논문의 연구주제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기준(최창욱 외, 2013)을 참고해 재구성하여 구분한 주제영역을 토대로 분류하였다. 우선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전체 39편 중 19편(4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참여기구 운영·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는 17편(43.6%), 기타영역 3편(7.7%) 순으로 나타났다. 학위논문의 경우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인 반면, 청소년참여기구 운영·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는 연구보고서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8> 분석대상 논문의 주제에 따른 분류

구 분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연구보고서	소계	비율(%)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청소년에 대한 연구	13	5	1	19	48.7
청소년참여기구 운영·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6	11	17	43.6
기타		3		3	7.7
합계	13	14	12	39	100

다음으로 <표 9>에는 <표 8>의 연구주제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분석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전체 19편으로 이 중 영향 및 효과성 연구가 15편(38.4%) 요인분석 연구가 3편(7.7%), 기타연구가 1편(2.6%)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참여기구 운영·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전체 17편 중 문제점과 실태분석,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14편(35.8%), 촉진 및 장애요인 탐색, 기초 연구, 제도화 방안 연구가 각각 1편(2.6%)으로 나타났다. 기타 연구로는 문헌연구가 2편(5.1%), 지도자의 인식경험에 대한 연구가 1편(2.6%)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분석대상 논문의 주제별 내용분석

구 분	연구주제		소계	비율(%)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청소년에 대한 연구	변인들 간의 관계	영향 및 효과성	15	19	38.4
		요인분석	3		7.7
		기타(유형 비교)	1		2.6
청소년참여기구 운영·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문제점(실태분석),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 모색		14	17	35.8
	촉진 및 장애요인 탐색		1		2.6
	기초 연구		1		2.6
	제도화 방안		1		2.6
기타	운영지도자의 인식경험		1	3	2.6
	문헌 연구		2		5.1
합 계			39		100

다음으로 〈표 10〉은 대상과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결과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장 많이 연구된 대상은 3개 청소년참여기구가 혼합된 22편(56.4%)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점(실태분석),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가 11편(28.2%), 영향 및 효과성 연구가 6편(15.4%), 기타(문헌연구)가 2편(5.1%)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가 혼합된 연구의 경우 총 6편(15.4%)으로, 영향 및 효과성 연구가 4편(10.3%), 요인분석 연구가 2편(5.1%)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대상이 단독인 연구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6편(1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 3편(7.7%), 청소년특별회의가 2편(5.1%)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대상에 따른 연구주제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청소년특별회의만을 대상으로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운영,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가 2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범정부적 성격의 청소년특별회의 특성상 연구범위가 전국으로 그 범위가 넓어, 정보 확보나 검증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초기 운영·발전방향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소년참여기구의 성격과 범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구는 청소년운영위원회 1편에 그쳤다.

〈표 10〉 분석대상 논문의 주제별 내용분석 (대상-연구주제)

구 분	연구주제								소계	비율 (%)
	변인들 간의 관계			운영·발전방향				기타		
	영향 및 효과성	요인 분석	기타 (유형)	문제, 개선 방안	촉진, 장애 요인	기초 연구	제도화 방안			
청소년특별회의				1			1		2	5.1
청소년참여위원회	2			1					3	7.7
청소년운영위원회	3			1		1		1	6	15.4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4	2							6	15.4
3개참여기구(활동)	6	1	1	11	1			2	22	56.4
합계	15	3	1	14	1	1	1	3	39	100

5. 제언 분석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연구에서 연구자들의 제언을 정리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내용분석의 결과는 한편의 논문에서 여러 향후 과제나, 논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분류된 범주에 해당하는 횟수를 중복 처리하였으며, 해당과정에서 교육학 박사 2인과 박사과정 1인이 참여하여 합의의 과정을 통해 내용을 유목화 하였다.

내용분석 결과, 향후 과제로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추진방식이나 평가 및 피드백 체계와 같은 체계 보완,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각각 11번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제도적 지원과 네트워크와 관련된 내용이 각각 9번 제시되었고, 학생회, 학교(학급)회의, 생활기록부, 교육정책, 교육과정 등 학교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참여기구 활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홍보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각각 8번 제시되었다. 구성원 선발 과정 보완, 실질적인 참여의 장 제공의 필요성을 밝힌 내용도 7번 제시되었다. 또 다른 유형의 제언으로는 연구적용을 다양화 하거나, 자료수집방법을 다양화 하는 등의 세밀한 연구 설계가 필요하며, 성장, 발전을 검증해내는 다양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밝혔다.

〈표 11〉 분석대상 논문의 제언

내용	횟수	비율(%)
청소년에 대한 인식제고(이를 통한 청소년참여 장려)	11	8.5
체계 보완, 강화(추진방식, 평가 및 피드백 체계, 정책반영의 구조화)	11	8.5
연구적용의 다양화(대상 및 지역의 일반화)	10	7.6
제도적 지원(법률 개정, 조례 제정, 기반 마련, 제도정비)	9	6.9
네트워크 조직(구축, 강화, 연계)	9	6.9
세밀한 연구 설계가 필요(오류 방지, 자료수집방법 다양화 등)	8	6.2
학교와의 연계(학생회, 학교(학급)회의 연계, 생활기록부, 교육정책)	8	6.2
청소년 교육적 지원 필요(진입단계, 참여교육, 전문교육 개발, 워크숍)	8	6.2
홍보의 강화(홍보전략 다양화, 강화, 중요성 특강)	8	6.2
구성원 선발 과정 보완(대표성 확보)	7	5.4
실질적인(형식적이 아닌) 참여의 장(무대) 제공	7	5.4
성인(지도자/공무원) 교육적 지원 필요(담당자교육, 자격증과목 편성)	5	3.8
운영개선(메뉴얼, 내실화, 기능 명료화)	5	3.8
선행연구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적용	4	3.1
체계화된 의견 수렴통로 마련(온라인, 포럼)	4	3.1
성장, 발전을 검증해내는 다양한 후속 연구 필요	4	3.1
인센티브 부여(여건 마련)	3	2.3
제정적 지원	3	2.3
측정도구 개발 필요	2	1.5
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장, 시설장, 기관장)과의 소통	2	1.5
지역 자문단 활용	2	1.5
합 계	130	100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참여기구와 관한 국내 연구들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청소년참여기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참여기구의 발전적 연구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더 활발한 후속연구를 촉발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수행

되었다. 이를 위해 1998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학위 및 학술지 27편과 연구보고서 12편, 총 39편의 기초항목(서지정보, 문헌특성, 유형)과 내용분석을 위한 세부항목(연구대상 및 조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 및 내용, 제언)을 분석하였다.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논문의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2003년에 처음 등장하고 2004년부터는 학술지 논문이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특별회의가 시범회의가 2004년에 개최된 것과 당해 연도에 청소년기본법 개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으로 청소년 참여기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2015년 3편을 시작으로 점차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연구의 대상을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이 청소년참여기구 단독이 28.2%로 나타난 반면, 참여기구를 혼합하여 수행한 경우는 71.8%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단독 연구의 경우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단독분류로 한정 지을 경우 54.5%로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청소년특별회의나 청소년참여위원회와는 달리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관련 수련시설이 많으며, 그 범위가 나머지 2개에 비해 좁아 정보의 접근성이 용이하기에 연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기구 혼합 연구의 경우 청소년참여기구 모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56.4%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15.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논문과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논문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참여기구의 성격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실제로 이들을 대상으로 추진체계 및 운영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진행된 사례가 있으므로, 이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청소년참여기구의 성격과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청소년참여기구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연구대상의 세부 조사대상을 살펴보면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체 39편 중 19편(48.7%)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청소년참여기구의 계획, 활동, 평가의 주체가 활동청소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소년참

여기구의 구성이 참여청소년, 청소년지도자를 제외하고도 청소년기관 및 중앙·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향후 연구는 이를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방법으로는 양적연구가 20편(51.3%)으로 가장 많았으며, 질적연구가 13편(33.3%), 기타연구가 4편(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참여기구 연구에서 점차 다양한 방법론이 사용되고 있으나, 여전히 설문을 통한 양적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청소년참여기구 연구들이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연구를 반영한다(최창욱 외, 2006; 조혜영 외, 2008).

넷째, 연구주제는 선행연구의 기준(최창욱 외, 2013)을 참고해 재구성하여 구분한 주제영역을 토대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살펴보았다. 먼저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청소년에 대한 연구의 경우,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전체 19편 중 영향 및 효과성 연구가 15편(38.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학위논문이 13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술적 연구는 대부분 청소년의 참여활동이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연구를 반영한다(최창욱 외, 2013). 반면, 청소년참여기구 운영·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의 경우 전체 17편 중 문제점과 실태분석,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14편(35.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11편이 연구보고서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학위논문의 경우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청소년에 대한 연구에 대한 것이 대부분인 반면, 청소년참여기구 운영·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는 연구보고서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실적으로 청소년참여기구의 정보 수집이 어려워 정책 연구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학위논문이 활동청소년 개인에 한정된 연구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청소년참여기구의 기초연구가 청소년운영위원회 1편에 그쳐, 청소년참여기구의 성격과 범위가 다르기에 그 특성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청소년참여기구의 정보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연구를 통해 청소년참여기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연구자들의 제언으로는 향후 과제로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추진방식이나 평가 및 피드백 체계의 보완,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제도적 지원과 네트워크와 관련된 내용 제시한 연구도 있으며, 특히 학교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참여기구 활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홍보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제시되었다. 이는

〈표 11〉에서 ‘체계 보완, 강화(추진방식, 평가 및 피드백 체계, 정책반영의 구조화)(8.5%)’, ‘제도적 지원(법률 개정, 조례 제정, 기반 마련, 제도정비)(6.9%)’, ‘실질적인(형식적이 아닌) 참여의 장(무대) 제공(5.4%)’, ‘성인(지도자/공무원) 교육적 지원 필요(담당자교육, 자격증과목 편성)(3.8%)’ 그리고 ‘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장, 시설장, 기관장)과의 소통(1.5%)’으로,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기관 및 중앙·지방자체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음이 드러나 있다. 향후 연구가 이루어질 때 이러한 제언을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내 학술지뿐만 아니라 학위논문과 연구보고서를 포함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발전적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고필재 (2020). 개념도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요인 탐색 연구 : 청소년참여위원회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정 (2010). 청소년정책 참여활동의 촉진 및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3(3), 15-47.
- 김범구 (2012).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19(4), 315-337.
- 김윤나 (2006). 청소년관계법 연구 동향 분석. 教育 法學 研究, 18(2), 49-72.
- 김정숙 (2014). 청소년정책연구 동향 분석 및 과제(연구보고 14-R2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선 (2000). 청소년비행연구 동향에 대한 수량적 고찰. 청소년학연구, 7(2), 183-219.
- 김희성 (2004). 청소년 참여를 통한 정치·사회 임파워먼트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서효정 (2014). 청소년기 지적장애 학생의 적응행동 관련 연구동향과 과제. 지적장애연구, 16(2), 55-86.
- 송병국 (1999). 청소년 연구방법론의 동향과 과제. 청소년학연구, 6(1), 1-21.
- 오은주 (2008). 혼합연구방법론(Mixed Methods) : 정성적, 정량적 방법을 교차시키기. 국토, 132-141.

- 이상우 (2009). 청소년 여가활동 관련 석, 박사학위 논문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1(1), 23-49.
- 이정우 (2012). 청소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연구 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19(4), 293-314.
- 이혜경, 김현주 (2007).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관한 연구경향 분석. 청소년시설환경, 5(2), 29-42.
- 전명순 (2017). 청소년활동의 국내 연구동향 분석을 통한 향후 과제 제시. 한국청소년활동 연구, 3(2), 17-40.
- 조선화 (2004). 아버지-청소년 자녀에 관한 연구동향과 특성분석. 청소년복지연구, 6(2), 129-145.
- 조혜영 (2018). 한국의 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 변화 동향 분석과 과제. 인문사회 21, 9(5), 1125-1140.
- 김상미, 김영환 (2015). 청소년 대상 국제체험학습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2005-2014).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9), 311-330.
- 김상미, 남진열 (2013). 청소년 수련활동의 국내 연구동향 분석과 향후 과제. 청소년복지연구, 15(4), 55-83.
- 김형수, 최한나 (2004). 여자 청소년에 대한 국내 비행 연구의 동향과 과제. 청소년상담연구, 12(1), 15-27.
- 남성희, 전종설 (2013). 아동, 청소년 다문화 프로그램 연구에 대한 경향분석. 청소년학연구, 20(3), 129-158.
- 오치선, 권일남 (1998). 청소년활동 연구의 동향과 과제. 청소년학연구, 5(2), 109-127.
- 윤동엽, 문성호 (2010). 청소년참여 경험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7(1), 101-123.
- 정경은, 문성호 (2008). 청소년가출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5(1), 219-241.
- 조혜영, 최창욱 (2008). 청소년 참여활동의 성과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색 :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들과의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5(1), 111-140.
- 최창욱, 김승경 (2010). 청소년권리증진을 위한 참여확대 방안 연구(연구보고 2010-57). 서울: 여성가족부
- 최창욱, 조혜영 (2006).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및 참여권 확보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창욱, 조혜영 (2007). 청소년 정책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 청소년 정책참여 기구를

-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4(6), 203-227.
- 문성호, 문호영, 한지연 (2008).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의 동향에 관한 분석. 청소년학연구, 15(5), 261-285.
- 박승민, 김창대, 천명재 (2005).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과 과제. 청소년상담연구. 13(2), 3-14.
- 이상희, 이혜원, 최경옥 (2009).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청소년복지연구. 11(3), 129-148.
- 이영수, 손진희, 최윤진 (2012). 청소년 관련 학과 학위논문 연구동향. 미래청소년학회지, 9(3), 19-35.
- 최창욱, 전명기, 김윤희 (2013).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연구보고 13-R0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화관광부 (1998).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2002). 서울: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 (2003).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2007). 서울: 문화관광부.
- 여성가족부 (2015). 2015 청소년사업안내.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8a). 2018 청소년사업안내.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8b). 2018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 청소년기본법. 법률 제 15986호.
- 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15453호.
- 청소년복지지원법. 법률 제15988호.

Abstract

Analysis on the Research Trend of Local Youth Participation Organization

KIM Yong-jin*·KO Pil-jae**

This study aims to offer fundamental data on the local youth participation organization by providing a more systematic analysis on the local research, and therefore triggering more active follow-up studies.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 and research scope by considering studies that related to the topic of youth participation organization; it selected a total of 39 subject matters of analysis from 27 locally released theses and academic papers from 1998 to 2018, and 12 research reports that were published from local research centers. As a result, the yearly research trend first appeared in 2003, and from 2004, the academic papers were introduced. In terms of subject of study, 11 out of 39 cases were solely of local youth participation organization, and out of them were mostly of youth steering committee, being six cases. Furthermore during the study, there were 28 cases when combining the participation organizations, and 22 theses aimed at all youth participation organizations. As for the research methodology, quantitative research was the most popular by being 20 cases. The research subject of 19 cases were concerning active youths of youth participation organizations, and 17 research cases were based upon the operation and development plan. Additionally, the theses demonstrated a larger focus of research purpose on the youth and teenagers, whereas, research reports presented a higher proportion of research objective on the operation and development plan. The most common suggestion was the need for improved awareness towards teenagers, and supplementation and reinforcement of the

* Department of Youth Studies, Myongji University ICE, Lead Author, yongkim95@naver.com

** Department of Youth Education and Leadership, Myongji University, Co-Author, pjforum622@mju.ac.kr

implementation system. Lastly, the next assignment was presented after collecting the discussions of the research findings. This study allows a comprehensive analysis not only through local academic journals, but including theses and research reports, and has significance by suggesting the direction of research based upon this concept.

Keyword : Youth participation organization, research trend

투고일 : 2020. 2. 29. 심사일 : 2020. 3. 20. 게재확정일 : 2020. 3. 29.